

<b>Title</b>	アン・ギョソン教授コメントへの応答(韓国語)
<b>Author(s)</b>	松本, 周
<b>Citation</b>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No.55 別冊, 2013.3 : 75-77
<b>URL</b>	<a href="http://serve.seigakuin-univ.ac.jp/rep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07">http://serve.seigakuin-univ.ac.jp/rep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07</a>
<b>Rights</b>	



聖学院学術情報発信システム : SERVE

SEigakuin Repository and academic archiVE

## 안교성교수의 코멘트에 대한 응답

마츠모토 슈

안교성교수가 금회 발표한 졸론뿐만 아니라 2011년에 발표한 논문도 읽어주시고, 그에 따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로 부터의 코멘트의 최초 부분에서 졸론의 요지가 매듭지어 있지만, 거기에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데모크라시사회로서 존재해 왔다” 고 기록되어 있다. 만일 이것이 나의 견해라고 교수가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오해를 먼저 풀고자 한다. 1945년 이전의 일본이 데모크라시사회였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의 일본이 “사이비 데모크라시” 라고 갈파한 가시와기 기엔(柏木義円)의 해안을 아주 존경하며, 또 동의하고자 한다. 입헌군주제적인 의견을 갖춘 것 만으로, 금방 데모크라시 사회가 되었다라고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교수로부터의 질문을 순서에 따라서 응답하고자 한다.

“평화”, “민주주의”의 개념이 “일본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로부터 평화와 데모크라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우선 답하고자 한다. 그 관점에서 보면, “평화의 내면화, 수용화의 과정이 필요” 하다는 교수의 견해에 전면적으로 동의한다.

졸론에서 일본의 평화주의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일본의 “평화주의”가 친박한 방법으로 주장된다면, 그것은 자기 나라만이 전쟁의 피해를 받고싶지 않다라는 예고이즘이 되기 싫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평화주의”로 치장하면서도 편협한 내셔널리즘으로 타락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변국 특히 한국에 리버털 데모크라시 옹호를 위한 희생을강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요한 가르통이래, 평화개념이 확장된 것을 감안한다면, 졸론에서의 평화이해는 “소극적 평화”의 범위에 머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교수가 지적하는 JPIC와의 관련에서 말하자면,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이후에 일본이 직면

하고있는 방사능 오염 문제등은, 바로 북동아시아의 평화의 문제로서 논해져야 할 주제일 것이다.

데모크라시의 이해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나의 생각은 민본주의나 인민민주주의에서는, 참된 데모크라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 내지는 억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에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 나라 그것은 데모크라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야말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윤리적 노력에 있어서는, 인간이 누구나 군주로 되지않는 사회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거기에 중간 공리(公理)로서의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위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한일 기독교 교회의 자세의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국제적인 관계에서 전쟁없이 저항하는 방법”이라는 물음이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는, 국민국가 Nation State가 상대화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는 한, 국제관계에서의 저항권이 전쟁과 결합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것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에 의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방도, World Governance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의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일본의 기독교 교회의 특이성, 그것은 현재의 일본국헌법에 거의 의문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헌법9조와 예수의 산상의 윤리를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앞선 헌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한 견해가 의도적으로 되어 있던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던 간에, 현행 일본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증대한 윤리적 간과가 있다.

교수는 일본의 교회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일본 교회의 특이성으로부터는 단점이 떠 오른다. 일본의 기독교회는, 신앙이 개인의 내면의 일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서 일본사회와의 사회윤리적인 대결을 피해왔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내가 아는 한, 한국교회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앙적인 축복에 관심은 강하지만, 사회에의 의식은 일본교회와 같이 희박하지 않은가. 이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교회는 같이, 기독교 사회윤리 형성으로 향한 일층의 신학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양국 기독교가 각각, 그리고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분야”란,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 사회윤리의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북동 아시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책무를, 일한 양국의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신학적인 공동작업이, 북한에의 복음전도를 사회윤리적인 과제와 병행해 가면서 지향해 나가는, 일한 양교회의 공동의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봉사로 결실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상으로서 안교성교수의 코멘트에의 응답으로 하고자 한다.

(翻譯：高アンナ)